

원료 생산지 찾는 유통업계... 영상 제작 등 지역홍보 앞장

아모레퍼시픽

지역 '랜선여행' 콘텐츠 업로드
코오롱FnC
지방소도시 소개 '로컬 프로젝트'
초록마을 '전라남도 기획전' 진행

유통업계가 지역 특산품 사용, 지역 판로 확대, 로컬 프로젝트 전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행보에 열중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지역 농가의 특산품을 구매하고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데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발표한 '2030 어모어 뷰티풀 프로미스'에 따라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기업 관련 지역의 판로 확대, 관광객 유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랜선여행'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경남 사천 지역의 특산품 대나무 수액, 전북 정읍의 연꽃, 충남 태안의 백합 등을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라인인 아모레퍼시픽과



초록마을 지역 상생 프로젝트 '전라남도 기획전' 이미지.

/초록마을

설화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

경남 사천을 담은 랜선여행 콘텐츠 이후 연꽃과 백합 등의 수확 시기에 맞춰 정읍과 태안 등 아모레퍼시픽이 구매하고 있는 원재료의 생산지를 찾아 홍보 콘텐츠를 생산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객과 사회와의 소통과 상생, 대자연과의 공존이 지속가능 경영 목표의 두 축이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이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2019년부터 한 시즌에 지방 소도시 한 곳을 골라 브랜드 제품과 콘

텐츠로 지역을 소개하는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1SS시즌을 충청북도 옥천과 함께 한 코오롱FnC는 2017년 제주를 시작으로, 하동(19SS), 고창(19FW), 청송(20SS), 고성(20FW) 등에서 프로젝트를 이어왔다. 지난 5년간 소도시들의 상품을 에피그램 매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물론, 현지 한옥을 새롭게 선보이는 '올모스트홈 스테이' 등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역 상품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지난 3월에는 에피그램만의 스타일로 옥천의 농산물과 신선식품들의 패키지를 다시 디자인해 코오롱몰과 동영상 기반 쇼핑몰 컨비니에 소개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열고 지역 풍경이 담긴 스토리북을 선보이는 등 지역 문화를 적극 소개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초록마을은 지역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달 25일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라남도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초록마을 지역 상생 프로젝트 '전라남도 기획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물 한자리에 서 만나볼 수 있다.

기획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정성껏 키운 '무항생제한돈다리불고기용(냉장)', '무항생제한우불고기용(냉장)', '무항생제한우등심구이용(냉장)' 등 고품질의 축산 상품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특히 초록마을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상품으로 '우리아이입안애순질 민어살', '참굴비', '대삼치'를 준비했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 대표 브랜드로서 지역 농가 상생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다양하게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스타벅스커피코리아도 6일부터 스타벅스 제주 지역 4개 매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다회용컵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 활동을 위한 일회용컵 없는 매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잘 나가는 배달 이유식... 연평균 20% 급성장

배달 간편식 일상화에 신뢰도 ↑
롯데푸드 당일 생산 배달이유식 운영
hy 프레시맨 유통망 통해 이유식 배달
아이베넷 격일로 8시 이전 새벽배송

몇 년 새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배달이유식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로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기 어려운 부모가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간편식이 일상화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분유시장은 감소추세이나 베이비푸드 시장은 빠른 성장을 이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2015년 680억원이었던 간편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17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25년에는 간편영유아식이 3330억원, 조제분유가 3230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역전될 전망이다.

특히 간편유아식을 배달하는 배달이유식 서비스 시장이 확장세를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 이유식 시장은 지난해 1000억원 가량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배달 이유식 시장은 '베베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베쿡 외에도 중소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기존 분유 등 베이비푸드 분야 역량을 가진 중견기업들이 대거 진입했다. 지난해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이유식 수요가 늘자 후발주자들의 진입도 가속화됐다.

롯데푸드 파스타리 아이생각은 유통점을 통해 판매되는 이유식과,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만들어 배송해주는 배달 이유식을 운영한다. 배달이유식은 오후 4시까지 주문하면 롯데푸드의 간편식 전용공장인 평택공장에서 다음날 바로 생산해 발송해 준다. 파스타리 아이생각 이유식은 1인분을 1/2인분 2개 한 세트로 구성해,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1/2인분씩 개봉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쉽고 제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hy(구 한국야쿠르트)는 강점인 프레시맨의 유통망을 통해 이유식 배달에 나섰다. 최근 '프레시 배송서비스' 첫 번째 파트너로 친환경 이유식 브랜드 '팜투베이비'와 손을 잡았다.

팜투베이비는 hy가 보유한 600여 물류거점과 냉장카트를 활용한 전국 단위 콜드체인 배송망,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최종 과정)에서의 경쟁력, 구독형 서비스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고, hy는 배달 수수료 등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베넷의 이유식 전문 브랜드 '베넷밀'은 5월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소비자가 오전 9시 전에 베넷밀몰에서 이유식 등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8시 전까지 배송한다. 새벽배송은 격일배송(주 3회 배송)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베넷밀은 기존 주



아이베넷 이유식 전문 브랜드는 베넷밀을 통해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베넷밀은 새벽 배송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배달이유식 시장 선점에 나섰다.

6일로 운영한 이유식 주간 식단을 주 7일 식단으로 개편해 이유식 배달 빈도를 높였다. 최근 론칭한 '베넷밀 밀키트'는 코로나19 이후 아이들도 집콕 생활이 길어지는 것을 겨냥해 가정에서 고급 식재료로 만든 신선한 이유식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상황에서 분유시장은 감소추세지만 간편이유식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배달 이유식 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신규 주자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과기부 대학ICT센터 신규과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을 견인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 지원과제 8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국내 대학의 유망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센터를 선정해 ICT 분야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ICT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가 높은 유망 기술 분야(차세대통신, 사물인터넷 등)와 국내 기술 수준 향상이 시급한 분야(디지털콘텐츠, 블록체인 등)를 중심으로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차세대통신 분야에선 서울대와 경희대가, 사물인터넷은 세종대, 블록체인은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선정됐다. 이번 지원과제에서 학생 320여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이 첨단 ICT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고급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대 8년 간 매년 8억원 수준(1차년도 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韓-이스라엘, '유전자-세포 융합치료제' 공동개발 추진

산업부 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최
2건 공동연구개발 과제 승인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이 양국 지원을 받아 원격의료 시장과 바이오의약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5일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2건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1999년 양국 산업기술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개정 서명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 올해 상반기 접수된 양국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향후 추

진할 신규 협력 활동을 논의했다.

공동 연구개발 과제 승인에 따라 한국 의료기기 기업 (주)힐세리온과 이스라엘에 AI(인공지능) 시스템 기업 온사이트 메디칼은 미래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해 현장진단을 위한 'AI 가이드 기반 초음파 자가 진단기' 공동 개발에 나선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연구개발도 시작된다. 한국의 (주)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는 항암바이러

에 캡슐화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세포 융합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앞서 개정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기금출자액을 각각 400만달러로 2배 확대하고 공동R&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을 50%→70%로 상향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양국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상대국 파트너 발굴 프로세스 강화와 양국 공동 R&D 지원금 상향 등 4대전략을 확정했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1년 과기부 신규지원과제 선정대학>

분야	선정대학
사물인터넷	세종대
블록체인	광주과학기술원
컴퓨팅	울산과학기술원
디지털 콘텐츠	아주대
차세대통신(이동통신)	경희대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서울대
인공지능 반도체	인하대
양자정보통신	고려대

/과기부